대학원 산업인공지능학과 ‘어프렌티스 프로젝트’

**강의 소감문**

|  |  |  |  |
| --- | --- | --- | --- |
| 이름 | 유대건 | 학번 | 2021254013 |

|  |  |
| --- | --- |
| 강연 제목 | 발표기술 |
| 강사명 | 서보석 교수님 |
| 강연 일자 | 2021/11/04 |

|  |
| --- |
| *1. 강의 요약 및 소감*  이제까지 들어왔던 강의와는 다르게 강의 내용이 조금은 다른 쪽으로 변경이 되어 조금은 낯선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강의를 하는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어떤 중요한 내용을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하며 열심히 듣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기술적인 주제를 발견하거나 또는 관리하는 방법적인 내용을 다루었다면 이번 강의는 이미 주제는 선정이 되었고 그 다음의 내용을 다룬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즉, 선정된 주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어떻게 전달을 해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내용으로 다가왔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주로 하는 일이 개발 및 서비스 업무이다 보니 발표를 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 다시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일들을 돌이켜 보며 언제 발표를 한 경험이 있는지 떠올려 보면 학교를 다녔을 때나 회사에서도 개발을 시작하기 전 개발 방향 공유 및 진행 상황 전달을 위해 몇 번 진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는 주로 비교적 적은 양의 내용 전달을 했던 기억이며 발표 자료의 내용 또한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강의 자료에 나와있는 내용들에 맞게 적절히 발표가 되었다고 기억을 합니다.  어떤 내용을 갖고 발표 준비를 해야 할지 그리고 발표 내용은 어떻게 시각화를 해야 할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용을 전달해야 하다 보니 발표 자료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 외에 정리된 내용에 추가 설명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잘 전달할 수 있을 지 열의를 갖고 진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또 한 편으로는 기술 교육을 위해 발표를 진행했던 기억 또한 있습니다. 이 교육은 단기간에 전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아니다 보니 오랜 시간에 걸쳐 지속적인 발표를 했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발표 준비 단계부터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발표 자료도 기술서적 한 권 정도를 요약해야 할 정도의 많은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전달할 때 청중의 기술 이해 정도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발표 내용을 설명해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며 많은 내용을 추가 설명을 하다 보니 청중의 반 이상은 집중을 하지 않는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이번 강의를 들으며 그 때의 기억이 생각 나서 부족한 부분이 어디에 있었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발표 자료의 내용 보다는 효과적인 표현법이나 설득 기법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하나의 과목 내용 전달을 위해 한 학기(약 4개월)라는 긴 시간을 소요하나 회사 업무에 있어서는 길어도 한 달 이내에 그 많은 내용을 전달해야 하니 조금은 있을 수 있는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강의 내용의 일부분에 비교해 보면 더욱이 짧은 기간에 많은 내용을 전달해야 하는 상황이니 발표 준비를 많이 해야 효과적으로 내용을 전달하고 주의 집중을 떨어뜨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결론을 갖게 되었습니다. |
| *2. 개선사항*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좋은 주제를 선택할 수 있게 기술적인 도움을 주는 강의만이 아니라 이러한 내용의 강의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강의를 들으며 한 번 생각을 하고 다시 소감문을 쓰면서 예전 경험을 떠올리다 보니 많은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강의 내용에 빗대어 보면 발표 자료에 글이 너무 많으면 주의집중이 떨어진다고 있는데 이런 점을 반영하여 이번 강의 자료에도 그림이나 표 같은 예시가 조금 더 있다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